



김월회 교수님의

〈동양의 고전〉

이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동양의 고전들. 하지만 『논어』, 『맹자』, 『묵자』, 『도덕경』 등의 수많은 고전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할 뿐이다. 그렇다면 김월회 교수님의 '동양의 고전' 강의를 그 해결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동양의 고전'은 동양 고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논어』를 중심으로 고전을 '방법적'으로 읽고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수업으로, 동양 고전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돕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딱딱한 고전은 그만

많은 학생들이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전의 한문구절들을 모두 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종종 그 관심을 가로 막는다. 그러나 '동양의 고전'을 수강한다면 이런 우려는 접어도 된다. 이 강의는 잠들어있는 한문 구절을 외우고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잠든 고전을 현대에 다시 깨워내기 위해 필요한 '확장적인 사고 능력'을 배우는 수업인 것이다.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한문 구절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다. 고전과 생각하며 놀이한다는 느낌, 그 느낌만으로 충분하다.



고전, 방법적으로 읽기

'고전의 방법적 활용'은 고전을 죽은 지식으로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고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적인 독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학자들이 고전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방법적 활용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 강의 전반부는 고전의 내재적 독법을 통해 고전 읽기의 기초를 다지고, 강의 후반부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전의 방법적 독해를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강의가 단지 고전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님이 제시하는 인문사회적인 철학적 화두들은 다양하고 깊은 사고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대 중국의 지성사, 중화주의의 시작,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언어와 사고의 관계, 문명과 고전의 관계, 정치에 있어서의 학문의 역할 등의 다양한 주제들은 직접 수업을 들어야만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화두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화두들을 동양 고전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 접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 수업이 지닌 매력이 아닐까.

문성운
(경영학과 07학번)



『논어』와 함께 맛보는 다양한 고전들

이 말을 읽다보면 혹시 '동양의 고전을 배우는 수업'이라면서 『논어』만 배우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물론 '동양의 고전'이 논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긴 하지만, 중간 4주 동안은 짧게나마 『시경』, 『춘추좌전』, 『도덕경』, 『묵자』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논어 중심의 유가 사상뿐만 아니라 유가의 영원한 맛수인 도가 사상, 묵가 사상을 접해 보면서 『논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의 지평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유가 이상의 형이상학을 펼쳤던 노장 사상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양의 고전' 강의를 수강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조교의 수준 높은 글쓰기 밀착 지도

핵심 교양 과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배양이다. 하지만 여타 핵심교양 수업은 자신의 글에 조교의 간단한 평가들만을 뽐냈었지만, '동양의 고전' 수업은 한 단계 더 심화된 조교의 글쓰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신 제출하는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글쓰기 지도가 따라온다. 1차로 작성한 보고서를 조교에게 제출하면, 한 주 후에 조교의 세세한 평가와 개선해야 할 점이 메일로 되돌아온다. 이 평가를 참고로 보고서들 수정하여 교수님께 제출하는 형식으로 과제가 진행된다. 조교 선생님의 날카로운 비평과 조언 덕분에 글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 달에 두 번 수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수강 보고서는 자유 주제의 짧은 중수필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의에서 접한 화두에 관한 스스로의 사고를 펼쳐보는 수강 보고서는, 짧지만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연습이 되었다. 수강 보고서뿐만 아니라 수강생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e2L 상의 토론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e2L에서 동화들이 제시하는 문제들과 의견들을 보고,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덕이 아닌 덕이 있다 빈 본 강의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과목의 보고서 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생각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동양의 고전'의 참맛은 고전을 통해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접하는 데 있다. 이 강의를 수강한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교수님이 제기하는 이치로운 철학적 화두 및 이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들 통해 생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 기를 수 있었던 논리적, 철학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고전은 타 학문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핵심 교양'다운 수업이 아닐까 싶다. 평소 동양의 고전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철학적 화두에도 관심이 있던 학생들에게 '동양의 고전' 수강을 권하고 싶다.